

책임의식

지난 50년간 인류가 이룩한 기술 문명의 질은 그 이전 유사 이래 수천년 동안 인류가 쌓아 올린 그것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것이었으며, 근래에는 기술의 혁신이 1년 단위는 커녕 수개월 단위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 퍼스컴의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더라도 ‘애플’ PC에 감탄을 연발하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왕년의 ‘애플’은 공짜로 주어도 갖기를 사양한다는 것이요, 퍼스컴 한 대를 새로 구입하려 해도 몇 개월 후에는 또 신제품이 지금보다 싼 값으로 쏟아져 나올텐데...” 하며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우리의 안전 점검 업무 내용은 어떠한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고 너나 없이 이구 동성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좀처럼 그 내용은 수년 간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점검 기준과 방법이 자주 변한다면 어느 면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급변하는 산업 기술 수준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 점검은 가치를 잃을 것이다.

그러면 점검 내용의 혁신을 연구·검토할 책임이 가진 것은 어느 부서인가? 물론 위험 관리부가 그 책임의 일단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저 유명한 NFPA Standards가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살펴 본다면 기술 기준이나 법규의 실제 이용자·적용자인 점검 실무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된다. 실무자들은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는 데 그치지 않고 NFPA 본부에 “이러 이러한 식으로 개정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건의해 오기 때문에 NFPA의 기술 기준은 끊임없이 개선되며 그 권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NFPA에서는 매년 5월에 Annual Meeting을 열어 Standards의 개정에 관한 토의를 3~4일씩 하고 있다. 이 회의에 참가하는 NFPA 회원들은 먼 곳으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일간 숙박하면서 기술 기준의 개선에 관하여 논쟁도 하고 표결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런 모임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自費)를 들여 가며 봉사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NFPA의 Standards를 직접 제정·개정하는 200여 개의 실무진 즉 Committee의 멤버들도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바쳐 완전히 무료 봉사를 하고 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이런 일에 봉사함으로써 인류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데 대하여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근래에 ‘방재 연구위원회’를 세분화하여 본부 기술 직원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였고 교육도 크게 강화하여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교육을 강화해도 기술 직원 모두가 철저한 책임의식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기술 업무의 개선은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말하자면 위험관리부는 하드웨어요 점검 실무자들은 소프트웨어인 셈인데 좋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한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기준이나 방법이 발견되면 즉시 위험 관리부에 알려 주고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진 기술 직원들이 많아질 때에 기술 업무의 질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